

[14~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마지막 인문 지문이야. 인문 지문도 학생들이 어려워하는데, 특히 이과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해. 그 이유는 ① 비슷한 듯 다른 용어, ② 찾기 어려운 공통점, ③ 완벽하지 않은 설명, 이렇게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어.

① 비슷한 듯 다른 용어부터 얘기해 보자. 철학 중에서도 특히 서양 철학 같은 경우에는 용어가 직관적이지 않아서 매우 어려워. 칸트가 얘기하는 ‘정언 명령’이라던지, 데카르트가 얘기하는 ‘방법적 회의’, 헤겔이 얘기하는 ‘정반합’, 이런 것들은 용어부터가 너무 어려운 데다 철학자가 만들어낸 말을 다시 한국어로 번역한 것이다 보니 번역자마다 번역이나 의미 해석을 다르게 하기도 해. 심지어 아는 용어라고 해도 철학자마다 얼마나 그 용어를 깊이 들여다보느냐에 따라 용어의 뜻이 달라지기도 해. 대표적인 예시가 ‘자아’야.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아를 ‘생명체의 형상이자 혼(영혼)’이라고 설명하고, 프로이트는 ‘현실에 잘 적응하면서 동시에 본능의 욕구를 어떻게 하면 만족시킬 수 있는지 찾는 성격’이라 얘기해. 심지어 자아는 ‘주체’, ‘인격’, 이런 단어들과 혼용해서 쓰이기도 하다 보니, 뭐가 뭔지 감을 잡기가 어려운 거지. 이 경우에 제일 중요한 것은 각각의 학자들이 얘기하는 용어의 정의에서 무엇이 ‘핵심’인지를 찾는 거야. 학자마다 주장하고 싶은 ‘핵심’적인 포인트가 있고, 그 주장에 대해 근거를 제시하니까 우리는 그 ‘핵심’을 찾아내려고 노력해야 해.

이제 ② 찾기 어려운 공통점에 대해 얘기해 보자. 지문에서 학자 한 명의 사상을 얘기할 때도 있지만 그건 매우 드물고, 대부분은 여러 학자의 주장을 제시해. 이때 중요한 것은 학자마다 주장에 ‘차이’가 있지만, 그 속에서는 ‘공통점’도 존재한다는 거야. 그런데 지문에서는 ‘차이점’을 강조하지, ‘공통점’은 그렇게 강조하지 않아. 그러나 어려운 문제의 선택지에서 결정적인 정답으로 나오는 것은 ‘공통점’인 경우가 많아. 그러니 우리는 여러 학자의 주장이 나왔을 때 ‘차이점’에만 주목하지 말고 숨겨져 있는 ‘공통점’도 보려고 노력해야 해.

③ 완벽하지 않은 설명, 이걸 무슨 말이나면, 짧은 지문에서는 학자가 책 한 권에 걸쳐 써놓은 주장과 근거를 다 옮겨놓을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 그중에서도 제일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말만 옮길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 우리가 글을 읽을 때는 ‘여기에서 어떻게 여기로 넘어갈 수 있는 거지?’하는 의문이 남을 때가 많아. 특히 어려운 글일수록 더. 그런데 학생들은 그걸 이해 못 하는 게 전부 본인 탓이라고 생각하더라고. 그게 아니야. 필자가 한정된 공간에 글을 옥여넣다 보면 미처 설명을 충분히 하지 못하는 지점도 생겨. 이때 중요한 것은, “필자가 설명해주지 않았으면 출제될 수 없다.”라는 마인드를 갖는 거야. 설명을 안 해줬으면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인 거지. 또, 완벽히 설명하지 못할 때는 문단 뒤에 슬쩍 ‘정리된 문장’을 넣어주기도 해. 그러면 우리는 정리된 문장을 보고, 그 내용만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또, 어떤 게 정리된 문장인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글의 구조’, ‘문장의 역할’을 잘 생각하면서 읽어야겠지?

2022학년도부터 인문/예술 지문은 항상 (가), (나)로 출제됐는데, 이번 해는 인문/예술 지문이 (가), (나) 지문이 아니게 되었어. 그런데 이 지문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봤던 [4~9] 지문보다도 생각하고 고민해야 할 부분이 많아서 이 시험지에서 제일 어려운 지문이었어. 그럴수록 뭘 생각하라고? ‘필자가 설명해주지 않았으면 출제될 수 없다.’라는 것! 설명해 준 부분만 최대한 곱씹어보면서 이해하려고 노력해보면 되는 거야. 부담을 내려놓고 시작해보자.

¹철학에서 특정한 개인으로서의 인간을 ‘인격’, 그중 ‘나’를 ‘자아’라고 한다. ²인격의 동일성은 모든 생각의 기반이다. ³우리는 과거의 내가 현재의 나와 동일한 인격이기에 과거에 내가 한 약속을 현재의 내가 지켜야 한다고 판단한다. ‘칸트 이전까지 인격의 동일성을 설명하는 유력한 견해는, ‘생각하는 나’인 영혼이 단일한 주관으로서 시간의 흐름 속에 지속한다는 것이었다. ⁵‘주관’은 인식의 주체를 가리키며, ‘인식’은 ‘앎’을 말한다.

- ① 문단
- ① ‘특정한 개인으로서의 인간’ = ‘인격’이고, ‘나’ = ‘자아’래.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아서 어디가 중요하고 무엇을 위해 이걸 제시한 건지 하나도 모르겠어. 이럴 때는 그냥 더 읽으면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
 - ② 인격의 동일성은 모든 생각의 기반이래. 이걸 갑자기 왜 나왔지? 또 모르겠지? 이럴 때 어떻게 해? 그냥 더 읽으면서 기다리자고.
 - ③ 음. 이걸 좀 이해할 수 있겠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동일한 ‘나’니까 과거에 내가 한 약속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지. 이걸 나타내는 게 ‘인격의 동일성’인 가봐.
 - ④ 음. 이 지문에서는 ‘인격의 동일성’을 설명하고 싶은 것 같아. 우리는 막연히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는 동일하다고 생각하지만, 철학에는 ‘당연하다’가 없어. 그러니까 이런 것에도 ‘왜’를 붙여가며 설명하려고 노력하는 거지. 칸트 이전까지는 왜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와 동일하다고 생각했냐면, 시간이 흘러도 똑같이 존재하는 ‘생각하는 나’라는 영혼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대. 음. ‘생각하는 나’라는 ‘영혼’이 중요한 말인 것 같아.
 - ⑤ 앞에서 ‘단일한 주관’이라고 할 때 ‘주관’은 인식의 주체를 가리킨대. 그러면 인식을 ‘하는’ 주체는 ‘생각하는 나’ 하나뿐이어야 한다는 말인 것 같아. 이때 ‘인식’이라는 것은 또 ‘앎’을 의미한대. 무언가를 알아내는 주체는 ‘생각하는 나’ 하나뿐이어야 한다는 말인 것 같아.
- 되게 많은 용어가 쏟아졌고, 그 용어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자세히 설명한 부분이 없어서 첫 문장부터 해맸을 거야. 그렇지만 일단 [1] 문단에서 두 가지를 꼭 생각하고 넘어갔었다면 좋았을 것 같아.
- ① 지금 지문이 얘기하고 싶은 주제는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는 왜 동일할가’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 ② 칸트 이전까지는 ‘생각하는 나’라는 영혼을 가지고 저 질문에 답했다는 것. 이 두 가지만 챙겼다면 나머지는 좀 뭉개서 읽어도 괜찮아.



¹그러나 칸트는 '나는 생각한다.' 즉 '자기의식'은 인식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본다.
²그러한 조건 자체는 무언가가 실재함을 보장하지 않는다. ³그러하기에 자기의식은 '생각하는 나'가 단일한 주관으로서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 즉 '영혼의 실재함'을 보장하지 않고, '영혼이 실재할 가능성'을 열어둘 뿐이다.

②문단

- ① '그러나'로 시작했지? 그러면 칸트는 '생각하는 나'를 가지고 저 질문에 답을 하는 것에 불만이 있었다는 것을 추측해볼 수 있어. 그러니까 ①번 문장은 '생각하는 나'가 있다는 것만으로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와 동일하다'라는 것을 설명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자. '자기의식', '나는 생각한다'라는 얘기를 앞에서 했나? '생각하는 나'라는 영혼이 있다 그랬잖아. 칸트 입장에서 그건 '인식', 즉 '무언가를 알아내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 중 하나일 뿐이래. ①문단에서는 '무언가를 알아내는 것'을 하는 '단일한' 주체가 있으니까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와 똑같다고 한 건데, 칸트는 뭐가 불만인 걸까?
 - ② '무언가를 알아내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무언가가 실재함'을 보장해주지 않는데. 아직까지도 칸트는 어디에 불만을 가진 건지 잘 모르겠어.
 - ③ 이 문장을 읽으니까 조금 알 것 같기도 해. (아까 설명이 불완전하면 정리된 문장을 넣어준다고 했지?) 칸트는 어디가 불만이었냐면 '생각하는 나'가 존재한다고 확신하는 것이 불만이었던 거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해서 '생각하는 나' = '영혼'이 존재한다고 바로 확신하는 것이 불만이었던 거야.
- 그러면 이제 궁금해져야 해. '칸트는 그러면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와 동일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건가? 칸트도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와 동일하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 칸트는 이걸 어떻게 증명하지?'라는 생각이 들어야 해. 짧은 버전으로 줄이면 '그래서 저게 틀렸으면, 뭐가 맞는 건데?'인 거지. 이렇게 궁금해해야, ③·④문단에서 불친절한 설명이 쏟아지더라도 어디가 핵심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거야!

¹이를 바탕으로 칸트는 영혼이 인격이라는 견해를 반박한다. ²칸트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스스로의 동일성을 의식하는 것은 인격이다.'와 '영혼이 자기의식을 한다.'라는 두 전제 모두 납득할 수 있다고 보지만, 그 전제들로부터 '영혼이 인격이다.'라는 결론은 도출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³첫 번째 전제에 등장하는 '의식'은 실제로 존재하는 무언가에 대해 의식한다는 뜻이지만, '생각하는 나는 생각한다.'와 다름없는 두 번째 전제에 등장하는 '의식'은 무언가가 꼭 실재함을 뜻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③문단

- ① 그래. 지금까지 한 얘기는 '생각하는 나'라는 '영혼'이 존재 = '인격'이라는 얘기를 칸트가 반박한 거지.
 - ② 어이쿠. 칸트가 아직도 할 말이 많나 봐. 이 문장이 왜 필요한지 보려면 끝부분을 보면 돼. 칸트는 이 문장에서 '영혼이 인격이다.'라는 결론을 낼 수 없다고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왜 그런 결론을 낼 수 없는지 설명을 해줘야겠지?
 - ③ 그게 이 문장이야. 차근차근 보자. 첫 번째 전제에 등장하는 '의식'은 실제로 존재하는 무언가에 대해 의식하는 거래. 첫 번째 전제가 뭔가 봤더니, '시간의 흐름 속에서 스스로의 동일성을 의식하는 것은 인격이다.'라는 전제래. 이 말을 정리해보면, '인격'은 '스스로의 동일성'을 의식하는데, 이걸 '실제로 존재하는 무언가'에 해당한다는 거네. 무슨 말인지 완벽히 이해는 되지 않지만 넘어가 보자. '생각하는 나는 생각한다.'와 다름없는 두 번째 전제에 등장하는 '의식'은 무언가가 꼭 실재함을 뜻하지는 않는데. 두 번째 전제가 뭔가 봤더니 '영혼이 자기의식을 한다.'라는 전제래. 이때 '의식'은 '영혼이 하는 일'인 거잖아. 그러면 '영혼'이 실재해서 '의식'을 하는 건지를 어떻게 알지? 영혼은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거고, 상상 속의 영혼이 스스로에 대해 생각하는 거라면? 그러면 이때 영혼이 하는 '의식'은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지 않나? 아, 그래서 칸트는 실재할지 확실하지 않은 영혼을 가지고 인격이라 하면 안 된다고 했구나.
- ...가 시험장에서 됐다면 너는 나에게 더 배울 게 없으니 이 해설지를 덮도록. 현실 시험장에서는 이 반응이 정상이야. "대체 뭐 개소리야? 앞에서 얘기한 '의식'이랑 뒤에서 얘기한 '의식'이 다르다고? 왜?" 자, [A]로 묶여 있기도 하고 15번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걸 완벽히 이해해야 할 것 같지? 그러니까 이 지문에서 나가떨어지지. 이게 이해 안 된 건 누구 때문이야? 고작 3문장만으로 저렇게 길게 생각해야 얻을 수 있는 답을 설명하려고 한 필자 잘못이야! 그러니까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고? "필자가 설명 안 해줬으면 출제될 수 없다."라는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고! 그게 실제로 2026 수능 시험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었어.
- 길게 왔지만. 결론은 뭐야? 난 ③문단의 내용을 완벽히 이해하지 못하겠단지. 그렇지만 ③문단이 왜 있는지는 알지. 칸트는 '생각하는 나'라는 '영혼'이 존재한다는 걸 확신하는 것이 불만이었고, 왜 확신하면 안 되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이라는 것까지만 파악해도 너는 진짜로 훌륭한 학생이니까 자신을 믿고 15번을 풀러 가보자.

Last chanceE 국어 Part. 2

15. [A]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질문(발문)을 잘 읽어봐. [A]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물어봤어? 아니지? “[A]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을 묻고 있잖아. 그러면 그냥 [A]를 표면적으로만 받아들이고, [A]에 다음 선택지 내용이 없는지만 파악해 달라는 거야. 평가원은 이렇게 학생들이 시험장에서 완벽하게 이해하기 어려울 거라 생각되는 부분은 [A]로 통으로 묶어 버린 다음에, 이런 식으로 표면상으로만 받아들이면 풀리는 문제를 내 왔어. 출제자가 완벽하게 이해하라고 쓴 글이 아닌데, ③문단을 어떻게든 완벽히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한 학생들은 전멸할 수밖에 없었겠지.

① ‘두 전제’를 연결하는 개념의 함의는 실재성과 관련하여 어떤 점에서 서로 다를까?

선택률 35%/55%

이 선택지는 말을 어렵게 써놔서 그렇지, 끊어서 파악했다면 보여. ‘두 전제’를 연결하는 ‘개념’은 뭐야? 두 전제에서 공통으로 나온 말, ‘의식’ 이잖아. ‘의식’의 함의(속뜻)가 어떤 점에서 서로 다른지 [A]에 나와 있느냐를 묻고 있지? 그건 ③-⑤번 문장에 있네. 첫 번째 전제에서는 ‘의식’이 ‘실제로 존재하는 무언가’에 대해 의식하는 건데, 두 번째 전제에서는 ‘의식’이 ‘무언가가 꼭 실재함을 뜻하지는 않는다’라고 했잖아. 그러면 하나는 ‘실재하는’ 것에 대해 의식하는 건데, 다른 하나는 ‘실재하는지 아닌지 모르는’ 것에 대해 의식하는 거니까 실재성의 측면에서 다른 거네. 이렇게 보니까 어때? 이 선택지가 그렇게 어려웠던 건 아닌 것 같지? 이 문제의 정답률이 낮은 한데, 정작 다른 선택지의 선택률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닌 걸 봐서, 이 문제는 매력적인 오답이 있었다기보다 학생들이 ③문단이 뭘 얘기하고 싶은 건지를 파악하지 못한 채로, 눈알만 굴려서 풀려다가 틀렸다고 봐.

② ‘복수의 주관이 동일한 인격으로 인식된다.’라는 가정은 어떤 점에서 반박되고 있을까?

선택률 11%/9%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생각하는 나’라는 영혼이 단일한 주관으로 존재하고, 그게 인격이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 칸트가 반박하고 있는 거야. ‘복수의 주관이 동일한 인격으로 인식된다’라는 내용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④문단에 가서나 나오고, 그것에 대한 반박은 무려 ⑤문단에 가서나 나와.

③ ‘영혼이 실재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이 납득할 수 없는 전제인 근거는 무엇일까?

선택률 19%/13%

②문단에서 칸트가 ‘나는 생각한다.’, 즉 ‘자기의식’은 ‘영혼이 실재할 가능성’을 열어둘 뿐이라는 얘기를 했어. 즉, 칸트는 ‘영혼이 실재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을 받아들였어. [A]는 ‘영혼이 실재할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영혼이 실재한다고 확신할 수 없고, 영혼이 인격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영혼이 실재할 가능성이 있다’와 ‘영혼이 실재한다’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했다면, 즉 ②-③번 문장이 왜 나왔는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면 이 선택지를 헛갈렸을 수 있다고 봐. ‘문장의 역할’을 그만큼 강조하고 있는 문제인 거야.

④ 인격의 통시적 동일성이 ‘직접 증명’될 수 있다는 전제를 받아들여야 하는 근거는 무엇일까?

선택률 11%/6%

나중에 ④문단을 보면 알겠지만, 칸트는 인격의 통시적 동일성을 직접 증명할 수 없다고 봤어. 그리고 [A]에 이것과 조금이라도 비슷한 내용이 전혀 없지?

⑤ ‘영혼이 자기의식을 한다.’라는 전제가 ‘생각하는 나는 생각한다.’라는 전제와 다른 근거는 무엇일까?

선택률 22%/16%

분명 [A]에서 이런 말을 했지. ‘영혼이 자기의식을 한다’라는 두 번째 전제는 ‘생각하는 나는 생각한다.’라는 전제와 다를 게 없다고. 그런데 그 이유를 [A]에서 찾을 수가 없어. 우리가 추론해서 알아내야 하는 거지. 굳이 그 이유를 파내자면 ①, ②문단 내용을 봐야 해. 앞에서 ‘나는 생각한다’가 ‘자기의식’이라고 했어. 그리고 ‘영혼’은 ‘생각하는 나’라고 했어. 그러면 ‘영혼이 자기의식을 한다.’라는 말은 ‘생각하는 나는 생각한다.’랑 같은 말인 거잖아. 그러니 [A]에서 근거를 찾을 수 없는 거지. 이 선택지는 [A]를 어떻게든 이해하려고 애쓴 학생들이 골랐을 가능성이 높아. 분명 앞에서 말했던 정의나 개념을 종합해보면 그 근거를 찾을 수는 있거든. 하지만 이 선택지를 고른 학생들이 놓친 건 ‘문제가 뭘 물어보느냐’였던 거야. ‘지문’-‘문제’-‘선택지’, 어느 것 하나라도 놓치면 어려운 문제를 맞힐 수가 없어.



¹칸트는 통시적으로 동일한 인격의 존재를 직접 증명하는 대신 '시간의 흐름 속에서 마주치는 복수의 주관이 동일한 인격으로 인식된다.'라는 가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²그래야 경험적 판단, 윤리적 판단 등의 생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³생각의 구성은 시간의 흐름을 따르는데, 이러한 구성은 통시적으로 동일한 인격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4]문단

힘들지? 어, 나도. 근데 어찌지? 4~6문단은 앞의 내용보다 더 가관 이야. 이때 필요한 태도는 뭐다? "필자가 제대로 설명 안 해줬으면 출제될 수 없다!" 그래서 시쳇말로 '뇌 빼고' 읽은 학생들이 오히려 문제를 더 잘 맞혔을 거야. 시작해보자.

- ① 지금까지 했던 얘기 중에 핵심은 칸트는 '영혼'은 '인격'이 될 수 없다는 거야. 그렇다면 칸트는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가 같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까? 이걸 보려고 했더니 이야, 만만치 않은 문장이 나왔네. 일단 직접 증명하지 않는데. 그러면 어떻게 설명하나, '시간의 흐름 속에서 마주치는 복수의 주관이 동일한 인격으로 인식된다.'라는 가정을 해야 한대. 이걸 무슨 소리일까? 뒤의 설명을 더 볼까?
 - ② '그래야'가 나왔어. 앞이 '전제', 뒤가 '결과'라는 얘기가야. 이 가정은 왜 필요하나면 인간이 '생각'한다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래. 이걸 또 무슨 소리야?
 - ③ 생각의 구성은 시간의 흐름을 따르는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생각한다는 것은 '과거 - 현재 - 미래'에 대해 생각한다는 거지. 예를 들어 1문단에서 나왔던 '과거에 내가 한 약속을 지금의 내가 지켜야 한다.'라는 생각 같은 거. 아니면 '어제 내가 본 것과 오늘 내가 본 게 같은 거다.'라는 생각 같은 거. 그렇다면 우리의 수많은 '생각'이 맞다는 것을, 과거의 내가 한 생각과 현재의 내가 한 생각이 같다는 것을 어떻게 보장하냐 하면, 과거 - 현재 - 미래의 '나'가 모두 동일한 '나'라고 가정해야 한다는 거야.
- 사실 ③번 문장을 보고 이 생각까지 갔으면 천재인 거고, 핵심은 칸트는 '영혼'의 실재는 보장할 수 없으니, 그냥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모두 같은 나라고 가정하자는 말을 했다는 거야. 이과적 시선으로 보면 그냥 '가정'만 하고 끝난 거지. 그래서 한 문장, 한 문장의 의미를 파고들려고 끙끙댄 학생들이 오히려 성적이 더 잘 안 나왔을 거라고 얘기한 거야.

¹스트로슨은 자아를 인식하는 방식이 경험적 인식의 방식과 구별된다는 칸트의 견해에 동의하지만, 복수의 주관이 동일한 인격으로 인식된다고 가정하는 것은 철학적 상상에 불과하다고 칸트를 비판한다. ²인격의 문제에서 신체를 간과한 칸트와 달리, 스트로슨은 인격을 의식과 신체의 복합체로 본다. ³스트로슨에 따르면, 시공간적 세계 안에서 우리의 신체를 매개로 대상이 경험된다는 것은 과학적 사실이며 자아에 대한 인식은 경험적 인식들로부터 추상화되는 것이다. ⁴그러므로 시공간적 세계에서의 경험이 인격의 통시적 동일성을 뒷받침한다고 그는 주장한다. ⁵자기의식도 마찬가지로 경험에 의존하기에, 자기의식이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라는 칸트의 견해는 잘못이라는 것이다.

5]문단

칸트에 대해서 더 설명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어. 그렇다면 우리가 칸트의 생각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건 앞에서 얘기한 게 전부인 거야. 지금부터는 다른 사람이 나오잖아? 칸트와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이

같고, 어떤 생각이 다른지를 찾으면서(비교/대조) 읽는 게 핵심이 될 거야.

- ① 스트로슨은 자아를 인식하는 방식이 경험적 인식의 방식과 구별된다는 칸트의 견해에 동의한대. 잠깐, 칸트가 이런 말을 했었나? 여기서부터 꼬이는 거지. 시험장에서는 그랬구나, 하고 넘어갔어야 해. 하지만, 설명은 더 해볼게. '자아를 인식하는 방식'에 대해서 칸트가 한 말이 있어. '영혼이 자기인식을 한다.'라는 전제에 대해서 칸트가 납득할 수 있다고 봤잖아. 그런데 이게 '경험적 인식의 방식'과 구별된대. 이걸 어디서 한 말이나? '시간의 흐름 속에서 스스로의 동일성을 인식하는 것은 인격이다.'라는 전제가 있었잖아. '시간의 흐름 속에서 스스로의 동일성을 인식'하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경험적 인식의 방식'이라는 표현을 쓴 거야. 칸트는 두 전제에서 '의식'의 뜻이 다르다고 했으니까, '자아를 인식하는 방식'과 '경험적 인식의 방식'은 다르다는 말을 했다고 쓸 수 있는 거지. 여기까지 생각하라고 이 지문을 썼을까? 난 아니라고 봐.
- 핵심은 후반부야.** '복수의 주관이 동일한 인격으로 인식된다고 가정'한 게 칸트였잖아. 이걸 '철학적 상상'에 불과'하대. 아까 칸트가 '영혼'이 실재하는지는 보장 못 하니, 그냥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가 모두 같은 나라고 가정하자'라고 말했잖아. 그건 너무 상상 속 가정이고, 증명은 아니라는 거지. 그럼 스트로슨은 '인격의 동일성'에 대해 칸트와는 다른 방식으로 설명해야겠네? 가볼까?
- ② 스트로슨은 인격을 의식과 신체의 복합체로 본다. 칸트는 '인격'을 얘기할 때 '신체'라는 말을 꺼낸 적이 없으니 '칸트와 달리'라는 말이 맞네. 그러면 스트로슨은 인격을 얘기할 때 '신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할 것 같아.
 - ③ '우리의 신체를 매개로 대상이 경험된다', 이 말은 쉽게 바꾸면, 우리는 몸을 통해서 세상을 경험한다는 말이겠지. 이걸 '과학적 사실'이래. 여기까지는 납득되지? '자아에 대한 인식은 경험적 인식들로부터 추상화되는 것'이래. 이게 이해가 잘 안 가지. 이게, '추상화'라는 말이 참 어려운 철학 용어라 그래. '추상'은 '여러 가지 사물이나 개념에서 공통되는 특성이나 속성을 묶어서 파악하는 것'이라는 뜻이야. 즉, 여러 경험에서 공통점을 찾아서 묶어내는 거지. 그러면 스트로슨이 말하는 것은, 우리는 '나'에 대해 인식을 어떻게 할 수 있게 되었냐면, 경험을 바탕으로 공통점을 묶어서 '나'라는 존재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지.
 - ④ 스트로슨이 '인격의 동일성'을 설명할 때의 핵심은 '경험'인 거야.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가 왜 같은 '나'냐면, 내가 같은 몸을 가지고 경험을 계속 해왔기 때문이라는 거지. 어제도 너는 너의 몸으로 공부를 했고, 오늘도 너의 몸으로 공부를 하고 있으며, 그 경험은 이어지기 때문에 어제의 '너'와 오늘의 '너'는 같은 '너'라는 거야.
 - ⑤ 자기의식도 경험에 의존한대. 즉, '나'라는 존재에 대한 생각도 다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야. 여기까지는 납득되지? 후반부를 보면, '자기의식이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라는 칸트의 견해는 잘못됐대. 잠깐, 칸트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나? 2]문단 ①번 문장에서 했지. 칸트는 '내가 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으니 세상에 대해서 알 수(인식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했는데, 스트로슨은 '내가 세상에 대해서 경험을 하고 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스스로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게 된다.'라고 했으니, 둘은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야.
- 사실 이 문단은 '칸트'의 생각보다는 '스트로슨'의 생각을 이해하고, '칸트'와 무엇이 같고 다른지를 구별해주는 것이 핵심이었어. 내가 쓸데없이 길게 설명했지만, 스트로슨은 '경험'을 하고 있는 '신체'를 바탕으로 '인격의 동일성'을 설명한다는 것만 잡아냈으면 충분해!

¹롱게네스는 통시적으로 동일한 자아가 없다는 경험적 인식이 성립할 수조차 없으므로, 자아에 대한 인식은 경험으로부터 추상화된 것이 아니라고 본다. ²하지만 그는 자아와 인격이 시공간적 세계를 경험하는 인간에만 적용되는 개념이라고 주장한다. ³롱게네스는 인간은 도덕적 존재이며 도덕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자율성을 지닌 존재라는 칸트의 견해를 인정한다. ⁴그러나 자율성을 지닌다는 것은 시공간적 세계를 살아가는 동안 경험하는 것들 사이에서 스스로 선택한다는 것을 뜻한다. ⁵그러려면 신체가 있고 살아 있어야 하므로, 인격의 동일성의 기준은 각자가 자신의 것이라고 통시적으로 인식하는 신체라고 롱게네스는 주장한다.

⑥문단

진짜 마지막 문단이야. ‘롱게네스’라는 사람이 나오네. 그러면 이 사람은 ‘칸트’, ‘스트로슨’과 무엇이 같고 다른지를 찾는 게 핵심이겠지?

- ① 이야. 첫 문장부터 살벌하고만. ‘자아에 대한 인식은 경험으로부터 추상화된 것이 아니’래. 그럼 이걸 누가 한 말이야? ‘스트로슨’이 했던 말이지. 그러면 롱게네스는 스트로슨부터 까고 시작하는 거야.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내가 동일하다는 보장이 없으면’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무언가를 알아내는 게 불가능하대. 그럼 이 사람은 칸트가 했던 것처럼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는 동일하다’라는 가정을 하는 것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걸까?
- ② ‘하지만’이 나왔어. 앞뒤 내용이 서로 반대겠지? 자아와 인격은 인간에만 적용되는 개념이래. 동식물에게는 ‘자아’, ‘인격’, 이런 얘기를 할 수 없다는 거네? 이게 왜 ‘하지만’으로 연결됐는지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 ‘롱게네스’, 이 사람의 주장을 더 들여보야 할 거 같아.
- ③ 오, 롱게네스와 칸트의 공통점이 나왔다. ‘인간은 도덕적 존재이며 도덕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자율성을 지닌 존재’라고 생각한대. 이런 말을 앞에서 했었나? 안 했어. 뒷얘기를 더 끌고 오기 위해 갑자기 이 문장을 끌고 온 거야. 뒤를 더 보야 이 문장이 왜 있는지 이해할 수 있어.
- ④ ‘그러나’가 나왔어. 앞뒤 내용이 또 반대겠지? ‘자율성을 지닌다는 것은 ‘시공간적 세계를 살아가는 동안 경험하는 것들 사이에서 스스로 선택하는 것’을 뜻한대. 대충은 이해가 가는데, 도대체 이게 왜 ‘그러나’로 연결되어야 하는 거지?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
- ⑤ ‘그러려면’이니까 풀어 써야지. ‘자율성을 지니려면’이 되는 거야. 신체가 있고 살아 있어야 한대. 그렇지. ‘인격의 동일성의 기준’은 ‘각자가 자신의 것이라고 통시적으로 인식하는 신체’래. 그러면, 롱게네스의 입장에서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는 왜 같은 나인 거야? 내가 ‘과거의 나의 신체’와 ‘현재의 나의 신체’를 같은 ‘나의 신체’라고 인식하기 때문이라는 거지. 그러면 ‘인격의 동일성’을 판단할 때 ‘신체’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에서는 스트로슨과 같은 거네?
→ 이 문단은 ⑤번 문장만 이해했다면 나머지는 무시해도 괜찮아.

- 그런데 아직 해결하지 못한 의문이 있지. ①번 문장과 ②번 문장은 왜 ‘하지만’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③번 문장과 ④번 문장은 왜 ‘그러나’로 연결되어 있을까?
- ①번 문장은 스트로슨을 비판하는 내용이면서 은근히 칸트 말이 맞는 것처럼 보이는 내용이지? 그런데 ②번 문장은 자세히 들여다 보면 칸트를 비판하는 내용이야. 그러면 칸트는 인간 외의 존재에 ‘자아’, ‘인격’이라는 개념을 적용했던 걸까? 맞아. 그런데 이 내용이 지문에 소개되어 있지 않아서 ‘하지만’이 되게 어색한 접속어로 느껴지는 거야. (나는 그런 설명이 지문에 있었는데 삭제되었다는 의심을 하고 있어.) 지문 내용만으로 설명하면, 칸트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마주치는 복수의 주관이 동일한 인격으로 인식된다.’라는 가정을 했잖아? 그러면 칸트는 이 ‘복수의 주관’은 인간 외의 동물도 느낄 수 있는 거라 보는 거야. 그래서 ②번 문장은 ‘하지만’으로 시작했다 볼 수 있어.
- ③번-④번 문장도 이런 관계야. ③번 문장은 칸트의 견해와의 공통점을 언급하고 있어. 그런데 ④~⑤번은 칸트의 견해와 다른 부분을 설명하고 있어. 그러니까 ④번 문장은 ‘그러나’로 시작하는 거야. ‘③번 문장 vs. ④~⑤번 문장’, 이렇게 구도를 놓고 봐야 하는 거지.
- 다시 얘기하지만, ‘이건 꼭 잡았어야 해’라고 설명한 부분 외에는 ‘뇌 빠고’ 읽는 게 훨씬 더 문제를 맞힐 때 좋은 태도야. 계속 얘기했지만 “필자가 설명하지 않은 부분은 출제될 수 없어!”

단어 Check!

- 통시적: 시간의 경과에 따라 나타나는 사물의 변화와 관련되는.
- 매개: 중간에서 양편의 관계를 맺어 줌. 또는 그 수단이나 활동.
- 추상적: 직접 경험하거나 지각할 수 있는 일정한 형태와 성질을 갖추고 있지 않은. ²사실이나 현실과 동떨어져 막연하고 일반적인.
- 경험적: 거짓이나 상상이 아닌 현실적으로 보고 듣거나 몸소 겪은.
- 자율성: 외부의 구속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자기의 행동을 스스로 제어하는 성질.



14.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① 칸트에 따르면 자기의식은 영혼의 실재를 보장한다.

선택률 3%/2%

[2]-③번 문장에 그대로 쓰여 있지? 칸트는 자기의식이 영혼의 실재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잖아.

② 칸트에 따르면 생각의 구성은 시간의 흐름과 독립적이다.

선택률 7%/5%

[4]-③번 문장에 그대로 쓰여 있지? 칸트는 생각의 구성이 시간의 흐름을 따른다고 했어. 그래서 '인간이 생각한다'라는 말이 성립하려면 통시적으로 동일한 인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았어.

③ 스트로슨에 따르면 자기의식은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다.

선택률 12%/8%

[5]-⑤번 문장에 그대로 쓰여 있지? 스트로슨은 '자기의식은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라고 말한 칸트의 말은 잘못이라고 했어. 스트로슨은 '자기의식'은 '경험'에 의존하는 것이라고 말했고, 인식은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했어.

④ 스트로슨에 따르면 외식을 매개로 대상이 경험된다는 것은 과학적 사실이다.

선택률 20%/12%

[5]-③번 문장에 그대로 쓰여 있지? 스트로슨은 '신체'를 매개로 대상이 경험된다는 것이 과학적 사실이라고 했어. 의식(자기의식)을 매개로 대상이 경험된다는 것은 오히려 칸트의 주장에 가까워.

⑤ 롱게네스에 따르면 살아 있다는 것은 시공간적 세계 안에서의 선택에 필수적이다.

선택률 56%/71%

[6]-④~⑤번 문장을 보면 알 수 있지? '시공간적 세계 안에서의 선택'이라는 말은 롱게네스가 '자율성을 지닌다'라는 말과 같다고 했고, 자율성을 지니려면 '신체가 있고 살아 있어야' 한다고 말했어. 그러니까 시공간적 세계 안에서 스스로 선택하려면 살아 있어야 하는 것이지.

이게 '지문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필요로 하는 문제인가? 나는 아니라고 봐. 대신 '지문에 이 말이 어디 있었는지 하나하나 찾으려다가' 시간을 허비했을 수는 있다고 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지문에 대한 깊은 이해'보다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만, 지문에서 친절하게 설명해 준 부분만 최대한 이해하는 것'이라고 봐. 지금 14번 문제의 선택지들은 다 '인격의 동일성'이라는 지문의 핵심 제재에 대한 학자의 핵심 주장을 담고 있어. 그러니까 지문에서 '대충 이런 말이구나'라는 생각만 했다면 선택지의 말이 어디 있었는지 찾는 건 일도 아니었을 거라는 거지. 지문이 이해하기 어렵고 불친절할수록 이렇게 문제를 낼 수밖에 없어. 강조 지겹게 할게, "설명하지 않은 건 출제될 수 없다!"

16. 다음은 윗글을 읽고 학생이 작성한 학습 활동지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래의 핵심 개념에 대해 윗글에 제시된 학자들이 보일 수 있는 입장을 작성해 봅시다.

[핵심 개념 1] 자아에 대한 인식과 경험적 인식

• 칸트 : 자아를 인식하는 방식과 시공간적 세계의 대상들을 경험적으로 인식하는 방식은 다르다고 본다. ①

선택률 6%/4%

[5]-①번 문장에 그대로 있지? 스트로슨은 칸트의 이러한 생각에 동의했다고 했잖아. '이 문장이 무슨 의미인지 설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지만, '칸트가 이런 말을 했냐'라고 물어보면 쉽게 답할 수 있었어야 했어. 이걸 칸트와 스트로슨의 '공통점'이었으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읽었어야 해.

• 스트로슨 : 시공간적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경험적 인식은 자아에 대한 인식에 의존한다고 본다. ②

선택률 46%/63%

<오답 유형: 잘못된 조건/인과관계>

'A는 B에 의존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만 알았다면, 이 말이 틀린 말이란 걸 금방 눈치챌 수 있었을 거야. 'B가 있어야 A를 할 수 있다'라는 말이야. 그러면 스트로슨이 자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경험적 인식을 할 수 있다고 보았나? 아까 14번 문제 ③번 선택지를 풀 때와 논리가 똑같지? 스트로슨은 '자기의식'은 '경험적 인식'에 의존하는 것이라고 말했어. 따라서 '경험적 인식이 자아에 대한 인식에 의존'한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자아에 대한 인식이 경험적 인식에 의존'한다고 보는 거야. 14번의 ③번 선택지와 16번의 ②번 선택지는 푸는 논리가 똑같아. 이런 식으로 어려운 지문에서는 '핵심적인 주장'에서 여러 번 정답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으니까 알아둘 필요가 있어. 한 번 보이면 계속 보이는 거고, 한 번 안 보이면 계속 틀려야 하는 거니까.

[핵심 개념 2] 추상화 과정

• 스트로슨 : 경험으로부터의 추상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 '나'를 인식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 롱게네스 : 경험으로부터의 추상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 '나'를 인식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한다. ③

선택률 20%/14%

[6]-①번 문장에 있는 말과 똑같지? ②번을 답으로 못 고르고 ③번을 답으로 고른 학생들은 아마 선택지에서는 '동의한다'라는 말만 보고, 지문에서는 '아니라고 본다'라는 말만 봤을 거야. 두 서술어가 충돌하니까 답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지. 그랬다면, 선택지를 '생각하면서' 읽는 연습이 필요해. 선택지를 '나의 말로 풀어' 읽는 연습을 하라는 거야. 롱게네스는 자아에 대한 인식이 경험으로부터 추상화된 것이 아니라고 봤잖아. 그러면 경험으로부터의 추상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 '나'를 인식할 수 있다고 말한 거지. 이걸 '아무 생각 없이' 선택지와 지문을 '눈깔 맞추기'하는 학생들을 지적한 선택지라고 볼 수 있어.

[핵심 개념 3] 통시적 인격과 도덕적 존재

- 칸트, 롱게네스 : 도덕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자율성을 지닌다는 것을 수용한다. ④

선택률 13%/8%

⑥-③번 문장에 그대로 쓰여있지? ‘롱게네스는 인간은 도덕적 존재이며 도덕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자율성을 지닌 존재라는 칸트의 견해를 인정한다.’라고 했잖아. 이걸 ‘칸트와 롱게네스의 공통점’이라고 묶어서 읽었다면 이 문장이 어디에 있었는지 금방 생각할 수 있었겠지.

- 칸트, 스트로슨, 롱게네스 : ‘시간의 흐름 속 동일한 인격으로서의 나’라는 개념을 수용한다. ⑤

선택률 14%/10%

이건 ‘지문의 어떤 문장이 근거다’라고 짚기 어려워서, 이런 선택지가 오히려 해설하기는 어려워. ‘시간의 흐름 속 동일한 인격으로서의 나’라는 개념을 압축하면 뭐야? ‘인격의 동일성’이잖아. 이걸 ‘화제’고, 이것에 대해서 세 학자의 의견을 들어본 거니까 일단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들었어야 해. 그러면 근거를 하나하나 짚어보면, 우선 ④-①번 문장에서 ‘칸트는 통시적으로 동일한 인격의 존재를 직접 증명하는 대신 ‘시간의 흐름 속에서 마주치는 복수의 주관이 동일한 인격으로 인식된다.’라는 가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라는 말을 했으니까 칸트는 인격의 동일성 개념을 수용했다고 볼 수 있어. 그리고 ⑤-④번 문장에서 ‘그러므로 시공간적 세계에서의 경험이 인격의 통시적 동일성을 뒷받침한다고 그는 주장한다.’라고 했으니까 스트로슨이 인격의 동일성 개념을 수용했다는 것도 알 수 있어. 마지막으로, ⑥-①번 문장에서 ‘롱게네스는 통시적으로 동일한 자아가 없이는 경험적 인식이 성립할 수조차 없으므로, 자아에 대한 인식은 경험으로부터 추상화된 것이 아니라고 본다.’라고 했으니까 롱게네스도 ‘통시적으로 동일한 자아’라는 개념을 수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 하지만, 네가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근거를 찾으면서 풀라는 게 아니야. 지문을 읽을 때부터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내가 동일하다는 것을 이 사람은 어떻게 설명하지?’를 계속 궁금해하면서 읽어야 했고, 그걸 바탕으로 이 선택지를 고민 없이 맞다고 하고 넘어가는 게 이 선택지를 잘 푼 거야.

17.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문제의 핵심은 <보기>에서 ‘지문’과 관련된 내용을 최대한 끌어다 붙이는 것이야. 어떤 부분은 ① 지문 내용을 보여주는 예시가 될 수도 있고, ② 지문 내용과 비슷한 생각을 설명할 수도 있고, ③ 지문 내용과 다른 생각을 얘기할 수도 있어. 그러니 우리는 <보기>에서 지문 내용과 공통점, 차이점을 찾아 나가면서 읽어야 해.

<보 기>

갑: 두뇌에서 일어나는 의식을 스캔하여 프로그램으로 재현한다고 상상해 보자. 그런 경우, 본래의 자신과 재현된 의식은 동일한 인격이 아니야. 두뇌에서 일어나는 의식은 신체 전체의 기여로 일어난 것이기 때문이지. 즉, 프로그램으로 재현된 의식은 인격일 수 없어. ‘생각하는 나’의 지속만으로는 인격의 동일성이 보장될 수 없고, 살아 있는 신체도 인격의 구성 요소에 포함되어야 하거든.

‘두뇌에서 일어나는 의식’은 ‘프로그램으로 재현된 의식’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네. 그 이유가 ‘살아 있는 신체도 인격의 구성 요소에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봤어. 그러면 이걸 ‘칸트’의 생각과는 다르게, ‘스트로슨’과 ‘롱게네스’의 생각과는 비슷한 생각이라고 볼 수 있겠네.

을: 그렇지 않아. 프로그램으로 재현된 의식은 본래의 자신과 동일한 인격이야. 비록 프로그램은 신체가 없지만 우리 두뇌와 프로그램이 수행하는 사고 기능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없거든. 인격의 동일성은 어떤 가정도 두지 않고 이러한 사고 기능의 동일성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해.

‘사고 기능의 동일성’만을 기준으로 ‘인격의 동일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했어. 이건 어느 누구의 주장과도 비슷하지 않아. 이걸 기출에서 ‘기능론자’의 입장으로 소개된 적이 있어. 이렇게 지문에 나왔던 모든 사람의 생각과 다른 사람이 나오면 당황스럽긴 하지. 하지만 ‘③ 지문 내용과 다른 생각’을 얘기하는 <보기>도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출제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해!

① 롱게네스의 견해에 의하면, 프로그램으로 재현된 의식만으로 인격이 될 수 있다는 갑의 입장은 옳겠군. X

선택률 9%/8%

이렇게 안긴 문장이 긴 선택지를 읽을 때는 선택지를 해체해서 읽어야 해. 다음과 같이.

1) ‘갑’은 ‘프로그램으로 재현된 의식만으로 인격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을 했는가?

2) ‘롱게네스’의 견해에 의하면, ‘갑’의 입장은 옳은가?

자, 어디가 틀렸는지 바로 보이지? ‘갑’은 ‘프로그램으로 재현된 의식만으로’는 인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어. 괜찮지? 한편, 롱게네스는 ‘갑’의 입장에 동의할 거야. 둘 다 신체도 인격의 구성 요소라는 것을 강조했으니까.



② 스트로슨의 견해에 의하면, 신체를 지니지 않은 존재에게 인격이 귀속될 수 없다는 을의 입장은 옳지 않겠군.

선택률 15%/12%

이 선택지도 어떻게 해체해야 하는지 보이지?

- 1) '을'은 '신체를 지니지 않은 존재에게 인격이 귀속될 수 없다'라는 말을 했는가?
- 2) '스트로슨'의 견해에 의하면, '을'의 입장은 옳지 않은가? 자, 어디가 틀렸는지 바로 보이지? '을'은 '사고 기능의 동일성'만을 기준으로 '인격의 동일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봤어. 그러니까 '프로그램'으로 재현된 의식'도 '본래의 자신'과 '동일한 인격'이라고 말할 거지. 괜찮지? 한편, 스트로슨은 '을'이 옳지 않다고 볼 거야. 신체도 인격의 구성 요소라고 했으니까.

③ 칸트 이전까지 유력했던 견해에 의하면, '생각하는 나'의 지속만으로는 인격의 동일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갑의 입장은 옳지 않겠군.

선택률 39%/51%

일단, 갑이 '생각하는 나'의 지속만으로는 인격의 동일성을 보장하지 않는다고는 말했지? 이걸 문제가 없을 것 같아. 그런데 '칸트 이전까지 유력했던 견해'를 끌고 왔네. 이걸 **1**문단에서 잠깐 나왔던 거지? 다시 끌고 와볼게. "칸트 이전까지 인격의 동일성을 설명하는 유력한 견해는, '생각하는 나'인 영혼이 단일한 주관으로서 시간의 흐름 속에 지속한다는 것이었다."라고 했어. 그러면 이 견해에서는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내가 왜 같은 나라고 생각하냐면, "'생각하는 나' = 영혼 = 단일한 주관"이 통시적으로 지속하기 때문인 거야. 그러니 갑이랑 이 견해는 충돌하는 거지.

이의제기

이 선택지에 대해서 이의제기가 있었어. 이의제기 전문을 보면 매우 복잡하는데, 핵심만 간추리면 이거야. "칸트 이전까지 인격의 동일성을 설명하는 유력한 견해는, '생각하는 나'인 영혼이 단일한 주관으로서 시간의 흐름 속에 지속한다는 것이었다."라는 문장에서 "'생각하는 나' = 영혼 = 단일한 주관"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고, "'생각하는 나' = 영혼"이 있고, 이 영혼이 '단일한 주관'을 가지고 시간의 흐름 속에 지속하기 때문에 인격은 동일한 것이라고 해석해야 한다는 거야. 그러니, "'생각하는 나' = 영혼"이 복수의 주관으로 지속하고 있으면 동일한 인격이 아닌 것이고, 따라서 인격의 동일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생각하는 나'의 지속뿐만 아니라 영혼이 단일한 주관임을 더 보여야 한다는 거야. 나는 이걸 지문에서 '단일한 주관으로서'를 어떻게 해석했느냐는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봐. 내가 문제를 처음 풀었을 때는 사실 ③번을 '단일한 주관으로서'라는 표현 때문에, 살짝 고민하다가 넘어갔고, ④~⑤번이 다 확실하게 틀렸길래 ③번이 맞는 말이거나 싶어서 ③번을 고르긴 했어. 그런데 이게 이렇게까지 큰 이의제기로 이어질 줄은 몰랐지. ('이렇게까지 큰 이의제기'라고 한 이유는 평가원이 2017학년도 이후로 '국어 영역'에서 이의제기에 대한 답변을 내놓은 문제가 몇 개 안 되는데, 이 문제는 평가원에서 답변을 내놨기 때문이야.) 그럼 평가원의 답변을 볼까?

평가원의 답변

2026학년도 수능 국어 영역 14~17번은 「2026학년도 수능 대비 EBS 수능 특강 국어 영역 독서」에 제시된 '인격 동일성에 관한 논의'와 연계된 지문 및 문항입니다. 이의신청 대상인 17번 문항은 '인격의 동일성'에 대한 다양한 철학자의 관점을 다룬 지문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반응 중 가장 적절한 답지를 찾는 문항입니다.

이의신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문 1문단에 제시된 "칸트 이전까지 유력했던 견해"에 의하면, '생각하는 나'의 지속만으로는 인격의 동일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갑'의 입장은 옳을 수 있으므로, ③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아 정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문에 따르면, '생각하는 나'인 영혼은 "칸트 이전까지 유력했던 견해"에서 "통시적으로 동일한 인격"에 해당합니다. 지문, <보기>, 선지 ③의 '생각하는 나'는 '단일한 주관으로서 지속하는 영혼'이라는 의미입니다. 한편, <보기>의 갑의 입장은 "'생각하는 나'의 지속만으로는 인격의 동일성이 보장될 수 없고, 살아 있는 신체도 인격의 구성 요소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갑의 입장은 지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칸트 이전까지 유력했던 견해"의 핵심인 '영혼'에 대한 내용과 상이합니다. 따라서 지문과 <보기>를 토대로 정답을 ③으로 확정할 수 있으므로, 이 문항과 정답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뒷이야기

사실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야 했다는 사람도 있어. 1) 칸트 이전까지 유력했던 견해와 갑의 입장은 완전히 다르므로, 칸트 이전까지 유력했던 견해에 의하면, 갑의 입장은 옳지 않다. 2) 갑은 '생각하는 나'의 지속만으로는 인격의 동일성을 보장하지 않고, 신체도 인격의 구성 요소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니 ③은 옳은 진술이다. 이렇게 풀었다는 것은 "칸트 이전까지 유력했던 견해에 따르면, '생각하는 나'의 지속만으로 인격의 동일성을 보장할 수 있다."라는 게 판단 요소가 아니라고 본 거지. 갑이 그렇게 얘기한 것도 맞고, 칸트 이전까지 유력했던 견해랑 갑의 입장이 다른 것도 맞는데,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얘기한 거야. 그렇게 풀 수는 있다고 봐. 그런데, 지금까지의 기출은 그런 논리로 풀게 나오지 않았어. 평가원의 답변도 이것과 맞지 않고. 그래서 나는 위와 같은 풀이를 제시하지는 않으려고 해. 그냥 재미로 얘기해 본 거야.

④ 칸트의 견해에 의하면, 인격의 통시적 동일성은 그것에 대한 가정이 선행될 필요 없이 사고 기능의 동일성을 통해 판단된다는 을의 입장은 옳겠군.

선택률 25%/19%

칸트는 분명히 '시간의 흐름 속에서 마주치는 복수의 주관이 동일한 인격으로 인식된다.'라는 가정이 있어야 인격의 통시적 동일성을 설명할 수 있다고 했어. 그래서 '어떤 가정도 두지 않'아야 한다는 을의 입장은 옳지 않다고 할 거야. 또, 칸트는 '사고 기능의 동일성' 같은 것을 인격의 통시적 동일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은 적이 없어. 그냥 칸트와 '을'은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는 거야.

③번이 답으로 안 보였다면, 이걸 고를 수는 있었을 것 같아. 그랬다면 '을'이 누군가와와 입장이 비슷해야 한다고 고정관념을 가졌기 때문일 거야. 그랬다면, '을'은 스트로슨, 롱게네스의 입장과는 완전히 다른 것 같으니까 '칸트'의 입장이겠구나! 생각하고, 지문과는 전혀 상관없는 '뇌피셜'로 답을 고른 거지. '지문과 전혀 다른 얘기하는 <보기>'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해!

Last chanceE 국어 Part. 2

- ⑤ 롱게네스의 견해에 의하면, 인간과 상이한 존재에 의해서도 동일하게 수행될 수 있는 사고 기능이 인격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기준이라는 을의 입장은 옳겠군.

선택률 10%/8%

롱게네스는 '인간'에만 자아와 인격이 있고, '신체'가 인격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을의 입장을 옳다고 보지 않을 거야. 이걸 쉽지?

자, 지문의 난이도만 놓고 보면 [14~17] 지문이 제일 어려웠지? 솔직히 지금도 이해가 잘 안 가지? 그런데 문제를 풀어보니까 어때? 핵심적인 주장만 '대충' 이해해도 맞힐 수 있게 선택지를 줬지? 이게 내가 계속 얘기한 "설명하지 않은 것은 출제될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칸트는 통시적으로 동일한 인격의 존재를 직접 증명하는 대신 '시간의 흐름 속에서 마주치는 복수의 주관이 동일한 인격으로 인식된다.'라는 가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그래야 경험적 판단, 윤리적 판단 등의 생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라는 지문 내용에서 왜 이 두 문장이 '그래야'로 연결되어야 하는지를 이해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되었나?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해 가능한 만큼, 필자가 설명해준 만큼'만 이해해도 충분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내가 지문 해설에서 아주 길게 설명한 뒤에 '이게 된다면 너는 이 해설지를 덮어라'라고 얘기한 건 농담이 아니라 진심이야. 내가 한 문장을 엄청나게 길게 설명한 부분은 '시험장에서 그 생각을 했어야 네가 맞힐 수 있었어'를 보여준 게 아니고, '언젠가는 네가 이 지문을 끝까지 파고들고 싶을 때, 그때 한번 읽어봐라'라는 생각으로 적어본 거야. 이 지문을 이해하는 게 너한테 너무 버거웠다면, 지금은 잠시 내려놔도 좋아. 언젠가 네가 기출 독서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때는 지문을 더 파고들고 싶은 욕심이 생길 거야. 그때 나의 해설지를 다시 읽어보면 좋겠어. 독서 끝!